

자치 김승배·관광 김애숙·환경 허문정 도, 민선 7기 마지막 인사... 조직 안정화 방점

제주특별자치도가 조직안정화에 방점을 둔 민선 7기 마지막 정기인사를 11일 예고했다.

12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규모는 747명으로 승진 208명, 전보 477명(행정시 교류95명 포함), 신규 임용 62명이다. >>관련기사 8·9면

제주자치도는 이번 인사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위한 코로나19 방역대응 강화와 청정과 공존을 기반으로 한 제주형 뉴딜 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인력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빅3'로 불리는 2급 이상관 자리인 허범을 기초실장과 이종환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은 유임됐다. 이상현 제주시 부시장과 한웅 서귀포시 부시장도 유임됐다.

62년 하반기생 공로연수로 자리가 빈 특별자치행정국장에는 김승배 관광국장이 승진 발탁됐으며, 농축산식품국장은 한인수 친환경농업정책과장이, 명퇴를 하는 양홍석 해양수산국장자리에는 좌임철 해양산업과장이 각각 승진, 발탁됐다. 제주도농업기술원장은 허종민



허종민 농업기술원장 김승배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애숙 관광국장 이창민 도시건설국장 허문정 환경보전국장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 좌임철 해양수산국장 김길범 공항공정총지원단장 양인정 인재개발원장 변덕승 세계유산본부장

기술지원국장이 직위 승진을 하면서 자리를 꿰찼다. 장기교육을 마치고 돌아온 변덕승 부이사관과 김애숙 부이사관은 각각 세계유산본부장과 관광국장으로 임명됐다. 양제운 정책기획관과 제주도의회 좌정규 총무담당관은 부이사관 승진과 함께 장기교육에 들어간다. 문경삼 환경보전국장도 부이사관 장기 교육대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신임 정책기획관은 하상우 경제정책과장이 발탁됐으며, 고참 서기관인 김길범 안전정책과장은 공항공정총지원단장으로 직위 승진했다.

허문정 공항공정총지원은 환경보전 국장으로 자리를 이동했다. 이창민 도시건설국장도 양인정 인재개발원장은 각각 직무대리 표리표를 떼면서 유임됐다. 개방형 직위인 윤형석 미래전략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고준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도 유임됐다. 한편 이날 제주시와 서귀포시도 각각 537명, 342명에 대한 상반기 정기인사를 예고했다. 고대로그자 bigroad@ihalla.com



눈보라 속 선별진료소 대기 인파 11일 제주시에 눈이 내리는 가운데, 제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특별진단 2022년 제주 재도약 (3) 경제분야

제주경제 6년간 내리막길 가속화

2016년 정점 찍고 각종 경제지표 하강 국면
비대면 경제 주축 사업대변혁 대응전략 절실

1차 산업과 관광산업 등으로 지탱해 온 제주경제가 6년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제주도정이 기존 경제정책을 관행처럼 되풀이 할 경우 제주 경제 지표 상승세 전환은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코로나 19로 인한 세계경제 재편과 4차산업 혁명, 디지털 전환, 비대면 경제로 대표되는 사업 대변혁으로 제주기업들의 새로운 대응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제주경제는 지난 2016년을 정점으로 하강 국면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지난 2018년엔 마이너스 성장률(-0.9%)을 기록했다. 인구 순유입 규모 축소와 관광객 감소, 건설경기 부진, 관광 관련 서비스업의 성장세 둔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

이어 2019년에는 전년 대비 0.9% 성장해 잠시 회복되는 기미를 보였으나 이후 코로나19 발생·확산으로 인한 외부경제 충격으로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제주경제를 향한 부정적인 충격의 여파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회복력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단순히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는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로 '점프'하는 탄력적인

회복이 이뤄져야 한다. 도내 경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피해업종·계층 회복 지원과 도민일상 회복, 내수진작, 일자리 회복, 4차산업 혁명과 디지털 전환, 비대면 경제로 대표되는 사업 대변혁을 주문하고 있다.

제주연구원 고봉현 연구위원은 "우선 단계적인 일상회복과 빠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과 일자리 지원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의 산업구조적인 균형 수단으로써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흐름 속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외부 충격에 의한 경제위기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제주경제의 회복력을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대로그자

주민소환투표 5만5611명 서명시 가능

총 청구권자는 55만6107명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시사와 교육감 등 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려면 최소 5만5611명 이상 서명을 받아야 가능하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는 해마다 단체장과 지방의원 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 수와 청구 시 서명을 받아야 할 주민 수를 공개해야 한다.

제주도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 수는 55만6107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총 청구권자(유권자) 10/100 이상인 5만5611명의 서명을 받으면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가능하다.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는 선거구별로 총 청구권자의 20/10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지역 현안 결정을 위해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는 총 청구권자의 1/

30 이상이 서명하면 청구할 수 있다. 총 청구권자는 55만7737명, 최소 서명인 수는 1만8578명이다.

조례 제정이나 개폐 등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은 개정안 적용 시점에 따라 시기별로 다르다.

1월12일까지는 19세 이상 청구권자의 1/550 이상인 1012명이, 1월13일 이후부터 18세 이상의 청구권자의 1/550 이상인 1619명이 각각 서명해야 청구할 수 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이도주공 1단지 재건축 제동... 5면 / 주간학습지 뇌뚫뚫!... 12면

광역의 경계를 넘어, Balanced KOREA

초광역협력은 단일 시·도의 행정구역을 넘어 초광역적 정책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공동·협력 사업입니다.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 이제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립균형발전위원회
Presidential Committee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